저물녘 벌판에 앉은 눈사람처럼



맹난자
수필가

겨울 해가 부쩍 짧아졌다. 남은 달력 한 장에서 원효 스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년년이이하여 잠도사문(年年移移 暫到死門)이니라"

해(1년)와 해가 옮기고 옮겨서 잠깐 죽음의 문에 다다름이니 급하지 아니한가. 요지는 공부하라는 말씀이다. 〈발심수행장〉에서 나는 이 대목을 좋아했다. 그동안은 원거리에 있는 죽음이니 여유롭게 운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바로 코앞이다. 눈앞에 대상은 흐릿하고 귀와 눈도 멀어진 요즘, 내 몸은 저물녘 벌판에 앉은 눈사람처럼 적막하다. 적막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해체되고 싶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어떤 날은 들판에서 시신이 풍화되는 과정을 내 몸에 옮겨보곤 한다. 한줌 흙으로 동화(同化)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아무것도 아닌 '나 없음'의 해방감을 슬쩍 맛보기도 한다.

"끌어 모아서 얽어매면 한 칸의 초가집. 풀어헤치면 본래의 들판인 것을!" 누구의 시구(詩句)였더라, 눈사람 또한 머잖아 본래의 들판으로 돌아가리라.

한나절 독서마저도 자주 끊겨, 그럴 때면 TV의 리모컨을 찾게 된다. 연일 터져 나오는 함성, 100만 촛불의 행진. 실망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그는 최순실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여러 차례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변명 뿐,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 시간을 끌며 벗어날 수 있는 꼼수를 계산하는 것 같이 보인다.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232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달려 나왔다. 그들은 '퇴진'을 외치더니 '하야'에서 이제는 '구속'을 외치고 있다. 관저에서 덩그러니 혼자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12월 9일이었다. 그 전날 밤은 밤새 비가 내렸다. 구슬프게 내렸다. 피눈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외로운 대통령.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수 없었나? 어린 생명이 수장(水葬)될 때 왜 맨발로 달려 갈 수 없었나? 무엇이 그를 가로 막았나?

대통령은 당선한 지 얼마 안 되어 중국을 방문했는데 청화대학교 강당에서 중국 고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직접 에세이를 쓰면서 마음을 다스렸노라고 말했다. 그의 수필에는 이런 대목도 나온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면서 제가 깨우친 게 있다면 인생이란 살고 가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백년을 살다 가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줌 흙'과 '한 점(點)'에 지나지 않는 존재.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 비실체적인 몇 가지 요소들이 모여 일시적인 나를 이루고 있지만 무아적(無我的) 존재이다. 어디에 내가 있는가? 자만과 나르시스 그것은 신기루와도 같은 환(幻)일 뿐이다.

TV화면에서 대통령 얼굴의 멍 자국을 보며 30여 년 전, 정수직업훈련원 수료식에서 격려사를 하던 젊고 가녀린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갔다. 무상한 세월이 고약하다. 무상(無常)은 공(空)이다.

만물의 본질은 공(空)이며 형상으로 나타난 '나'는 연기의 법칙에 의존한다. 우리는 모두 연기적 존재다. 따라서 주변의 인간관계나 내 앞에 마주선 상대방이 더없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나이를 더해서 깨달은 건 인류의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나는 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마음뿐 사랑하는 방법에 서툴렀다. 작별 앞에 남겨진 후회가 많다. 내 한 몸 떠나면 한 물건도 소용없다.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안고 팽목항에 달려만 갔어도…. 시간을 놓치지만 않았어도…. 자비는 생명에 대한 헌신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실천, 일심의 정화(淨化)가 이 눈사람에게도 남겨진 숙제다. 판결 앞에 선 또 한 분의 눈사람도 그런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찬바람 속에 날이 저물고 있다.

'불교 세시풍속' 개발이 필요하다



노덕현
취재부기자

12월 21일 '동지'(冬至)를 맞아 불교계가 동지 팥죽나눔 축제를 열었다. 서울 인사동, 노량진, 시청, 탑골공원, 종각, 광화문 등 서울 6곳을 비롯해 전국 112개 장소에서 동시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9개 종단이 참여해 17만여 그릇의 팥죽을 전달했다. 특히 인사동 행사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나서 시민들에게 동지의 의미를 담은 리플렛과 팥죽 2만 그릇을 전달했다.

24절기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는 예로부터 선조들이 작은 설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절기였다.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가 녹아 있기 때문이었다. 동지에는 음기가 가장 강하고 귀신이 몰려든다는 속설에 고사를 지내고 팥죽을 나눠먹는 관습이 이어졌다. 이는 새해를 앞두고 묵은 기운을 떨치고 새 희망을 만들자는 의미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나눔 문화를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정신문화는 동지 외 정초, 입춘, 백중 등 불교와 관련된 절기에도 나타난다. 정초에는 지신밟기를 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 또 오곡밥을 먹으며 만중생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새로운 원을 세우기도 한다.

입춘은 아직 추위가 남아 있지만 따뜻함이 온다는 것을 일러주는 절기로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정진의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

산업화 과정에서 세시풍속이 사라지며 그 속에 담긴 정신도 잠시 잊혔지만 불교계에서는 맥을 이어왔다. 그러던 세시풍속이 이제 불교계를 시작으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각 사찰 스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절기, 그리고 명절마다 사찰을 찾거나 행사 참여를 문의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분당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은 평소 600명 수준인 주말법회 참여자가 동지나 절기 때에는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털어놨다. 한 스님은 특히 대보름, 동지 등에 음식을 먹기 위해 불자가 아닌 이들, 특히 직장인들이 사찰을 많이 찾는다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입증되고 있다.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지역 도심 사찰에서 진행되는 차례에 참가하는 인원은 매년 7% 이상씩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에는 대구 동화사 등 지역사찰에서도 명절 차례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제 불교계는 그동안 이어온 민족문화를 연구, 발전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기존의 획일적 의식에서 벗어나 세시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알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대인들의 삶에 불교적 방식의 재충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오늘날에 맞도록 재편, 전승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삶의 기반이 달라진 현대에 적합한 세시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불교계가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각 사찰의 종교적,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새로운 세시풍속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는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가운데 주민의 참여를 이끄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희미한 불교관련 세시풍속이 지닌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제도 새롭게 부각된다. 점차 대형화·장기화되는 의식이 많아지면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커질 우려가 있다.

그 무엇보다 다양한 명절과 절기의 문화 속에는 자기중심의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재됐음을 주지시키고 그것이 불교계가 이어온 세시풍속의 본질임을 일깨우는 작업이 강조돼야 한다.

불교계 최초로 각 종단이 참여한 동지 팥죽나눔 축제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 종단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긴급한 예산 요청에도 그 중요성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니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세시풍속을 개발하는 과정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에 이어 불교문화와 한국전통을 알리는 또 다른 작업이 될 것이다.

이제 세시마다 진행되는 불교계의 활약을 눈여겨보자.

社說

'無종교인' 급증이 던지는 메시지

불교 신자가 762만명이라는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 결과가 나와 불교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만 불자를 외치던 불교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전수조사가 진행된 1995년 1015만명, 2005년 1058만명과 달리 표본조사 후 762만명으로 무려 300만명 가까이 신자 수가 줄어 든 것이다.

하지만 줄어든 불자 수에 주목하지 말고 차분히 불교 현황을 살펴보자. 이미 탈종교화, 탈제도권화 현상은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가 5년 간 3.1% 감소했다는 통계와 종교가 없는 국민이 10년만에 12.2% 증가한 56.1%를 기록한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이런 와중에 개신교는 신자수가 늘었다. 사회양극화 과정 속에 조직적 보호를 받으려는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개신교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상은 어렵다. 먹고살기 팍팍해진 지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종교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찰이나 성당 등 기성 제도권화된 종교에는 열성적이지 않다. 어쩌다 오는 신자들도 이들 종교계 내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코자 오는 것이다.

불교는 그동안 참선, 명상 등 자기극복 수단 제공에는 성과를 보였지만 사회적 네트워크 제공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제는 자기극복 수단 외에도 신도조직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 소외받는 이들을 보살피고, 많은 시민들이 불교의 품 안에서 다시금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를 혁신해야 한다. 이제 불교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당장 불자들이 함께 불교 혁신에 나서야 한다.

내년 불교계엔 갈등보단 희망만을

시국이 어수선하니 한해가 정리되기보다는 연장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연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 소식으로 떠들썩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얼어버린 것 같다.

한 해 불교계 뉴스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소식보다는 뒷맛이 씁쓸한 소식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의 경우 직선제 찬성이 80.5%에 달했지만 지난 11월 열린 207차 중앙종회에서는 종법 개정 등 절차상 난맥으로 차기 회의 이월됐다.

출가자 감소로 인해 올해 조계종 교육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출가 진흥사업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출가자 수는 150명대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비구니 스님 출가자의 감소폭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안으로 나왔던 은퇴자 출가는 제도화에 실패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태고종 내부 종단 갈등의 불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 본지의 마지막 헤드라인은 "한국불교 인구가 급감하고 무종교인구 대폭 늘었다"는 것이었다. 2015 인구총조사의 표본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탈종교화'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은 유의미한 값이다. 본지 역시 '탈종교화·다불교' 현상을 창간특집 기획으로 기사화하며, 기성 제도권 종단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내년 한국불교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많고 분명하다. 외부로는 팽배해진 탈종교화 현상을 어떻게 감당해 내며 포교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내부로는 청정성 확보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갈등보단 희망의 소식으로 지면을 채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